雲門

불기2551년 가을호 통권 제102호
운문승가대학

불기 2551년 가을호 통권 제102호

雲門

목 차

	2		
호거산 운문사	3	사방을 휘휘보니	편집부
죽림헌	4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명성스님
교수논단	6	참법 수행의 전통과 계승	효탄스님
차례법문	10	믿고 맡기는 삶	석우스님
학인논단	12	원효의 무애가무극(無导歌舞劇) 연구	정안스님
깨달음으로 가는 길	16	법을 가진 자	편집부
생활 속의 진언	17	옴 아마라 검제이니 사바하	편집부
특별기고 Ⅰ	18	소통의 길을 향하여	정운스님
선사이야기	24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오직 할 뿐"	원효스님
想	26	가을 산행	아원스님
특별기고 Ⅱ	28	도(道)	고미숙
담소	32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의 손	신영복
끝없는 여정	34	그대가 바로 부처라	성화스님
이 한권의 책	38	아름답게 산다는 것	현산스님
사찰탐방	40	해월정사, 마음 달(心月)을 보이는 곳	효은스님
풍경소리	43	그리운 India	청현스님
수행의 두레박 Ⅰ	44	꿈에서도 부르는 나반존자!	범찬스님
Ⅱ	46	칸첸중가, '나'를 만나다	자안스님
운문논평	48	가을 서리, 봄바람	편집부
운문소식	50		
입학공고	51		

푸른산의 푸름을
허락지 않고
흰구름의 그 흰것도
허락지 않네
여기 돌창상에
한 사람 있어
삶을 휘휘 보니
허공조차 비좁네

서산대사 시를 적다
호정 이명옥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올 봄부터 가을까지 비구니 회관에서는 32분의 비구니 법사스님을 모시고 매주 법화산림법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했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도 한 분이 어느 날 모처럼 담소를 나누던 중 관세음보살의 32응신에 대하여 물어왔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닦으면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자비롭게 될 수 있습니까?"

보통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가피의 힘으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신앙 행위를 말하며 그래서 대표적인 기복신앙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그 신도님은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32응신 법문을 들으며 관세음보살에게 복을 빌기보다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평소 신도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학인 여러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발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그러한 자비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여인을 만나면 여인의 몸을 하고 뱃사공을 만나면 뱃사공의 모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다른 종류의 성질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은 다음 자비를 실천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는 둘이 아니며 지혜와 자비의 수행 역시 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지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마음이 스스로 부유한 자만이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듯 말입니다. 존재의 공성을 완전하게 체득한 지혜로부터 드넓은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비가 없는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지혜를 닦는 자리행을 행한 다음, 32응신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심 때문에 32응신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학인 스님 여러분, 만물이 성숙하는 이 가을에, 지혜를 닦은 다음 자비를 행하겠다는 작은 마음을 버리고, 모든 존재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그들과 더불어 정각을 이루겠다는 대승보살의 발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겨보길 바랍니다.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실천하며 한 순간 한 순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수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법 수행의 전통과 계승
- 신라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

효 탄 / 운문승가대학 강사

▲ 금산사 방등계단

목 차

Ⅰ. 서 론

Ⅱ. 참법수행
1. 신라시대 점찰법의 수행
2. 고려시대 참법 수행
1)점찰법의 계승
2)자비참법의 수용

Ⅲ. 결론

Ⅰ. 서 론

이 지구상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불교는 특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가 그 교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수행법을 제시한 종교는 그리 흔하지 않다. 불교는 그러한 점에서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더 없는 밝은 희망인 것이다.

특히 '一切衆生 悉有佛性' - 일체 중생은 모두 붓다[깨달음]가 될 수 있다 - 사상에서 출발하는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한 수행으로 看經 · 念佛 · 參禪 · 懺悔 등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따로 실천되어지는 것도, 優劣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根 · 欲 · 性이 다를 뿐이다. 수행에는 반드시 그 수행을 뒷받침하는 교리와 실천을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심오하고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종파와 사상별로 교리와 교리에 따른 실천 수행의 방법을 추구해 나갔다. 종교에 있어서 교리 · 사상과 실천 · 수행은 새의 두 날개처럼 따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에 더 멀리, 더 높이 이르게 한다.

그 가운데 참회는 신앙의 길에 접어들기 위한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기본 실천수행이다. 그러한 참회에는 理懺과 事懺이 있는데, 이참은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은 身 · 口 · 意 三業을 통해서 實懺하는 것을 말한다. 참회는 계 · 정 · 혜 삼학 가운데 持戒精神에서 출발한다 하겠는데, 이것은 점차 좀 더 세련된 정형화의 길을 추구하게 되고 儀禮化해 나가는 법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우리는 이것을 '懺法'이라고 부른다. 참법서의 대표적 예로 『華嚴大禮懺文』, 『觀音禮懺』, 『法華懺』, 『占察善惡業報經』, 『彌陀禮念道場懺法』, 『慈悲道場懺法』 등을 들 수 있다.

참법은 모든 사람이 죄업을 참회함으로써 스스로 환희심을 내어서 천룡팔부, 야차녀 등 귀신을 섭복시키고 모든 적을 회심시키며 나아가 제불보살이 護念加持케 하는 수행법이며, 이것은 교리와 사상적 측면보다는 실천 수행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이러한 참회 - 참법 수행정신의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미래에 어떻게 계승하여 나갈 것인지 논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따라서 먼저 참법수행에 있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진표율사 및 유가유식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신라 · 고려시대의 '참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참법 수행

1. 신라시대 점찰법의 수행

大乘 菩薩思想은 十地의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고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세밀히 구분되어 있는 등 치밀한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경론의 연구와 함께 삼매를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主尊佛을 신앙하며 치열한 '懺悔'가 요구되어졌다. 참회의 방법으로 이참과 사참이 있다. 이참은 진리에 입각한 참회법으로 죄업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관찰하여 참회를 이루는 觀察實相懺悔이며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심오한 참회법이다. 일찍이 元曉(617~686)는 『大乘六情懺悔』에서 '참회행자는 마땅히 六情의 방일을 참회해야 한다' 하면서 '본래 無生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이 전도되어 갖가지 번뇌를 일으켜 결국은 스스로를 결박하는 업을 지어 고해에 빠지고 있다' 하였으며, 따라서 모든 것에 실다움이 없음을 거듭 사유하여 점차로 닦아 가면 如夢三昧를 이루게 되고, 이 삼매로 말미암아 無生法忍을 얻게 되며, 오로지 一心에 계합함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참회는 당사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안으로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훈습과, 밖으로 모든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는 한반도에서 眞表에 의한 占察戒法에서 구체적인 실참의 실례를 보게 된다. 진표[1]는 스승인 崇濟로부터 『占察善惡業報經』(2권)[2]을 전해 받고, 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따라 참회를 수행하여 지장보살로부터 계법을 받고, 나아가 미륵에게 간구하여 189간자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신라 하대 진표에 이르러 지장 · 미륵보살과 관련된 『점찰경』에 의한 점찰계법은 점찰을 통한 참회와 계법의 수지라고 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진표가 지장 미륵에게 계법과 미륵간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유가유식사상과 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3]

『점찰경』은 說主인 지장보살이 숙세 선악의 업과 현세의 苦樂 · 吉凶 등을 3종 木輪相으로 점찰

1) 생몰년 미상, 경덕왕대에 활약하였다. 「百濟國金山寺眞表傳」 『宋高僧傳』 大正藏 卷50, p.794.
曉吞, 「高麗 法相宗의 懺法 修行」 『불교학연구』 4호, 2002. 6

2) 『地藏菩薩業報經』, 『地藏菩薩經』, 『大乘實義經』, 약칭 『占察經』 등으로 불림. 大正藏 卷17, pp.901-904.

3) 원래 유가 법상사상은 『瑜加師地論』, 『攝大乘論』, 등과 미륵경전에 의한 미륵신앙이다.

▲ 법주사 미륵대불

하는 법을 말하고 있으며, 악업이 많고 두터운 이라면 선정과 지혜를 배우기에 앞서 참회법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승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一實境界에 의지하여 信解를 닦아야 하는 대승실의를 밝히고 있다. 목륜상에 의한 점찰법의 수용은 신라 유식학승들의 치밀한 논구와는 동떨어진 듯 보이나, 점찰법은 세간의 卜筮가 단순히 길흉을 점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그와는 달리 중생들로 하여금 죄를 참회케 하는데 있으며, 두려움이 많은 중생들에게 안온함을 주고자 하고, 악업이 많고 두터운 사람에게 至心 참회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점찰법의 의의는 말세 중생들이 지심으로 참회하여 大乘의 一實境界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

『점찰경』에 의한 신앙은 중국 三階敎 및 지장신앙의 유행과 관련이 깊으며[4], 우리나라에서도 진표 이전부터 유행하였으며, 점찰보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즉, 진평왕대에 圓光은 歸戒滅懺의 법으로써 우매한 중생을 깨우치고 가슬갑사에 占察寶를 설치하고 상규로 삼았으며, 같은 때 智慧비구니는 매년 춘추로 안흥사에서 선남선녀를 모아 10일 동안 점찰법회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점찰회는 계승되었으니 죽은 蛇福과 그 모친를 위해 세워졌던 道場寺에서 매년 3월 14일 항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신문왕대에 興輪寺에서 六輪會를 열었고, 또한 오대 남쪽에 지장방을 두어 낮에는 『지장경』, 『금강반야경』를 읽게 하며 밤에는 점찰예참을 행하게 하며 金剛社라 이름한 것[5]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점찰신앙이 민간에 널리 확대되고, 사상적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신라 하대 진표의 출현을 기다려야 했다. 진표는 전 생애를 金山寺와 鉢淵藪를 중심으로 占察懺悔戒法에 의한 교화를 펴고 통일신라 중심부에서 전체에 이르기까지 行化를 펼쳤다. 또한 진표의 법은 영심→심지에 의해 金山寺→法住寺→桐華寺에 계승되고 寶宗, 信芳, 體珍, 珍海, 眞善, 釋忠 등은 모두 산문의 개조가 되니[6] 점찰법이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이 까닭에 진표를 점찰교법의 확립자이며 참회불교의 집대성자라고 보고 있다.[7] 진표의 신앙은『점찰경』에 의한 것이었으나 신앙 대상은

4) 失吹慶喜,『三階敎硏究』,『韓國思想論文選集』, 古代, 唯識思想(1), 불함문화사, 2005.
5)『三國遺事』 卷4「圓光西學」, 卷5「仙桃聖母隨喜佛事」, 卷4「蛇福不言」, 卷5「大城孝二世父母」, 卷3「臺山五萬眞身」, 大正藏 49卷, p.1007.
6)『三國遺事』 卷4「義解 眞表傳簡」, 大正藏 卷49, p.1008.
7) 蔡印幻,「新羅眞表律師硏究」『韓國佛敎戒律思想硏究』, 1997. 金永泰,「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硏究」,『佛敎學報』 9輯, p.128.

지장보살보다 오히려 미륵보살인 특징이 있다. 그가 亡身懺悔를 통해서 점찰경과 증과간자 189를 받은 것도 미륵보살이었고, 묘계는 미륵보살설의 菩薩戒本과 서로 흡사하며[8] 특히 점찰경에서 설하고 있는 三聚戒 등은 바로 보살계본의 그것과 같다. 미륵과 지장은 究竟者와 中間子라는 관계에 있으며 유가 유식 - 법상종의 주존불은 미륵인 까닭인 것이다.[9] 지장과 미륵 두 보살로부터 계법을 얻은 후 진표는 점찰교법을 통한 懺悔修行과 授戒를 통하여 대중교화를 이끌어 나갔다.[10]

진표의 점찰법은 그 뒤 제자들에게 전수, 전개되었다. 永深이 속리산에서 베푼 법은 占察六輪과 조금 다르나 수행하는 것은 산중에 전하는 본규와 같은 것이며[11] 영심에게 법을 받은 心地는 중악 팔공산으로 돌아가 간자를 봉안할 곳을 점찰하여 당을 짓고 안치하였다.[12] 또한 심지는 경문왕 3년(863) 비로암 삼층석탑 건립을 한림사간 伊觀과 함께 주관하였는데, 일을 함께 행한 大德 融行, 唯乃僧 純梵, 唯乃師 心德 등도 동화사 승려로 심지와 같이 점찰법을 수행하였을 것이다.[13]

한편, 효공왕 12년(908) 중아찬 이재가 나라의 경사를 빌고 전쟁을 물리치기 위하여 남령에 팔각등루를 세우고 八公山 桐華寺의 弘順大德을 좌주로 재를 베풀고 경찬하였으며 태연대덕, 영달, 경적, 지념, 홍륜사의 융선 등 고승 대덕이 모여 법회를 장엄하게 한 기록[14]은 태현의 유식학 계통과 진표의 점찰법이 신라 하대에 같은 종파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 후 진표의 가사와 계간자는 석충에 의해 태조에게 전해짐으로써 고려대에도 그 전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사인 堀山祖師 梵日(810~889)도 정취보살상을 얻고 簡子를 만들어 創寺할 곳을 점쳐서 불전을 짓고 그 상을 모셨으니[15] 당시에 점찰법이 널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참회수행을 중심으로 했던 진표의 점찰법은 금산사에서 시작되어 기층민을 상대로 각 지방으로 확산되어 선종이 융성하는 시기를 거쳐 소속 사원을 중심으로 교세가 위축되지 않고 그 전통이 고려대까지 계승되었던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

8) 「達摩戒本」·「菩薩地持論」 등으로 불리는 「菩薩戒本」은 미륵의 제설을 無着이 기록했다는 『瑜伽師地論』 本分地 중의 菩薩地와 동본으로 曇無懺 이 번역한 것이고, 대승보살계가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9) 진표가 점찰경의 설주인 지장보살보다 점찰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미륵보살을 더 신앙하였을까 하는 것은 당시 미륵하생신앙의 성행과 또한 계법준수 정신이 강함과 관련지어 생각되어진다. 지장보살은 석가불이 입멸하고 당래의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의 교화를 부촉받았다. 따라서 지장보살을 증간자로 표현한 것이다.

10) 金山寺의 방등계단은 通度寺의 금강계단과 함께 계단이 설치되고 설계하였음을 증명한다.

11) 「眞表傳簡」, 『三國遺事』 卷4 義解 大正藏 卷49, p.1008 · c

12) 「心地繼祖」, 『三國遺事』 卷4 義解 大正藏 卷49, p.1009 · b~c

13) 「新羅敏哀王石塔記」, 『朝鮮金石遺文』 pp.178-180.

14) 崔致遠, 「壽昌郡 護國城 八角燈樓記」, 『東文選』 卷64.

15)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三國遺事』 卷3 塔像.

믿고 맡기는 삶

석 우 / 사교과

안녕하십니까? 사교과 석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서늘함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 가을이 오기는 왔나 봅니다. 재촉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나오는 대로 맡겨 움직이는 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지금 이 순간도 맡기고 살지 못하는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만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운문사를 처음 와 보았습니다. 지금도 넓은 도량이지만, 기억 속의 운문사는 훨씬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이 드넓은 도량에 풀 한 포기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돋아나는 풀들만으로도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바쁘셨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도량은 깔끔하니….

시간이란 수레바퀴가 한참 지나서야 도량 내에선 치문반 스님, 밭에서는 사집반 스님, 미화는 사교반 스님, 반송 아랜 화엄반 스님들의 숨은 호미질로 기억 속의 운문사 도량이 정리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스님! 이렇듯이 우리가 매일 대하는 풀, 잡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풀, 잡초를 보통은 일컬어 '제 자리를 벗어나 자라는 모든 식물'로 규정합니다. 한 마디로 백해무익하게만 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열심히 이들을 뽑아댑니다.

저는 숨쉬고, 잠자고, 밥 먹는 일상사 중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들로 인해 이는 마음 곧 시비, 분별, 망상, 화, 분노 등의 것들을 이 잡초와 같이 여겼습니다. 도량 내에서 호미로 아무 생각 없이 쑥쑥 뽑아대는 잡초들처럼 이런 것들이 뿌리 뽑아지기를 바랐지만, 저 스스로가 역부족임을 알기에 크고 작은 돌들로 눌러 놓기 일쑤였습니다. 사실상 외면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곳엔 사고가 나는 법인지라 눌러 놓은 것들 사이로 질긴 생명력을 드러내는 잡초들을 감당키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거센 이목

소의 물길이 한 자리에서 소용돌이치며 도는 것이 끝인 것 같으나 물의 흐름 앞에선 서로가 상속되어 한 연장선상에 있듯이 시기가 도래하면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잡초를 뽑아대듯이 마음에 이는 각양각색의 꼴을 어렵더라도 그 뿌리까지 확인하고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버겁기만 한 저 자신을 지켜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포행을 갔다가 짙푸른 숲 사이의 풀들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큰 나무들 사이에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벌레들은 잎 사이사이를 의지한 채 기대고 있었으며, 이른 새벽 머금은 이슬은 낮의 숲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량 내에서, 밭에서, 뽑아대기만 하던 이들은 놀랍게도 이 자연계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여름의 쇠비름을. 이 쇠비름은 다른 식물들이 땅속 깊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곳엔 일부러 쇠비름을 심기도 한답니다. 옥수수 뿌리가 견고하게 땅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말입니다. 또 쐐기 풀류나 한해살이 야생나팔꽃 등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찾아 보호식물로써 모성 잡초의 역할을 합니다. 즉 표면에 결집되어 있는 광물질을 토양 하부에서 위로 옮겨 농작물이 그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토양을 섬유화시켜서 비옥하게 만들며 땅속의 동식물에게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모든 잡초가 토양의 건축가인 셈입니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귀찮고 보기 싫은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잡초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없애야 한다고 여겼던 마음의 번뇌들 또한 그 체의 근본까지 따져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반스님의 얘기처럼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잡초가 있고, 자연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른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좋고 나쁘며, 옳고 그르며, 화나는 것들이 따로 있어서 오는 것인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닐진대 믿고 맡기면 돌려질 것을 왜 그리 돌리지 못하고, 끄달리는가?"

저는 아직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내 끄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대중스님께 빈한하기만 한 제 살림살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기만 하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따져서 바라보는 일을 조금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뽑아내야 하는 풀은 없기 때문이죠.

대중스님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갑니다.

바람에 서걱거리는 후박 나뭇잎의 몸짓이 귓가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우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대로의 도리를 우리 모두 몰록 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원효의 무애가무극 (無碍歌舞劇) 연구

정 안 / 사교과

목 차

1. 서 론

2. 원효의 무애사상

3. 원효의 무애가무극
   1) 가창의 기능
   2) 가무의 기능
   3) 강창의 기능

4. 결 론

1. 서 론

지금까지 연구된 원효 계열 논서는 다방면에서 방대한 양을 이루고 있다. 원효가 한국 불교계에서 일대 획을 그었던 대선사였음을 입증하는 성과물이겠다. 그러나 원효 불교의 결정체이자 대중 불교의 꽃을 피웠던 무애가무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그 일면만 소개되었을 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本考는 원효가 일종의 속강의식(俗講儀式)을 통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一人 불교연극 형태의 연희예술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원효에 의해 창작되고 연희된 무애가무에 연극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무애가무극'이라 상정하고, 무애행의 근본사상과 무애가무극의 가창(歌唱), 가무(歌舞), 강창(講唱)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원효의 무애사상

무애행의 근본사상은 모든 것의 원천이요, 모든 상대적 차별을 떠나는 一心으로 귀결된다. 이것을 근거로 당시 성행했던 모든 쟁론을 회통하는 화쟁사상으로 그만의 독특한 사상을 구축하였으며, 그 발현은 바로 100여부 200여 권의 저술활동이었다. 이것은 교단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만의 새로운 해결방안이었다.

그러나 원효는 이것이 진정 이론을 근거한 실천 활동이 아니었음을 자각하였다. 그는 분황사에서 『華嚴經疏』를 집필하는 도중, 「十回向品」에 이르러 절필한다. 대승불교에 입각한 진정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 실천적 의지와 태도를 『華嚴經』의 「十回向品」에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대안으로 정토사상을 표면에 내걸고 '신라의 불국토화'를 실현하기 위해 통속적인 불교 대중화 운동에 앞장서 일정 촌락이나 도성 내의 시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교화행을 종합하여 집대성하고 완성하였다.

3. 원효의 무애가무극

강창문학(講唱文學)은 하나의 故事를 산문과 운문의 교직으로 서술한 작품유형으로, 講唱者에 의해 산문부분은 강설되고 운문부분은 歌唱되던 독특한 작품형태를 총칭하는 장르 명칭이다. 이러한 문학형식은 원래 불법홍포를 위해 불경의 고사(故事)를 일반 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한 대본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그 내용이 비불교적으로 통속화되면서 민간오락으로 변모 · 발전한 것으로써 중국문

학사에 비중 있게 취급되는 문예양식이다.[1]

그러한 산실로 唐代에 성행한 俗講을 들 수 있겠다. 속강은 경문의 내용을 부연 · 통속화하고 그 진행방식을 연희화시킨 일종의 俗化된 강경의식(講經儀式)이며, 이 속강의 대본이 바로 강창문학의 선구가 된 變文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강의식이 실연되면서 불교의 제반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희, 연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장엄한 변상도의 장식과 法樂器의 반주가 수반되면 속강승이 등장하여 감동적으로 법문을 강설 · 가창하여 대중을 감화시킨다. 게다가 중요부분에서는 의식무용이 곁들여진다. 이것은 속강이 기본적으로 문학 · 음악 · 미술 · 무용 등 불교적 예술장르를 망라한 입체적 공연예술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은 일종의 불교연극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2] 중국의 연희화된 속강의식의 흔적을 신라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곧, 惠空 · 大安 · 元曉 등이 대중교화를 위해 펼쳤던 연희 행각이다.

惠空은 大醉하여 가항(街巷)에서 삼태기를 지고 가창하고[3] 大安은 특이한 형상으로 시전에서 동발(銅鉢)을 치며 가창했다.[4] 그리고 원효는 속복을 입고 광대들이 사용하는 큰 바가지 모양의 무애호(無碍瓠)를 들고 촌락을 두루 다니며 가무로 교화했다. 모두 正格의 강경의식과는 다른 자연스런 法席이다. 기존의 궁전이나 사찰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오락적이고 그 연예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여 사람들의 이목과 호응을 얻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고 평이하게 세속적인 설법을 근간으로 하여 불법을 설창하였던 것이다.

이는 연예승적인 승려가 歌舞 · 伎樂과 같은 교화매체를 활용하면서 설법 대본을 講說 · 歌唱하는 연극형태 즉, 대중화된 속강적 불교 연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애가무극은 자체적으로 歌唱, 歌舞, 講唱의 연극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1) 가창의 기능

『삼국유사』의 「元曉不羈條」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연히 어릿광대가 굴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기괴하였으므로 그 형상으로 도구를 만들어서 『華嚴經』의 "一切無碍人은 한결같이 生死를 벗어난다"라는 구절로써 '無碍'라 이름하고, 인하여 노래를 지어 세상에 유포시켰다. 일찍이 이를 지니고 수많은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화영(化詠)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모두 불타의 이름을 알고 나무아미타불의 칭호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가 크다고 하겠다." [5]

위의 사실로 보아 원효가 무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것을 알겠으나, 그 노랫말은 서술하지 않아 어떤 내용의 노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한 고려 충렬왕(1285년) 당시에도 무애가가 구비 전승되었고, 그것이 무애가 원형의 모습은 아니지만 俗歌의 형태로 변형되어 조선시대까지 宮中무才로 연희된 것을 알 수 있다.[6] 또 노랫말이 구비 전승되었는데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래가 너무 길어서 지면상 할애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작자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내용의 가사를 구태의연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초기 무애가가

1) 엽덕균, 『宋元明 講唱文學』, 河洛圖書出版社, 1978.
2) 경일남, 「講唱文學의 戲曲的 展開」, 『語文硏究』 제21집, 語文硏究會, 1991.
3) 일 연, 『三國遺事』 卷四 「義解」 第五 「元曉不羈條」.
4) 찬 녕, 「唐新羅國黃龍寺元曉條」 『宋高僧傳』 卷24.
5) 일 연, 上揭書.
6) 『高麗史』 樂志 卷25 樂2.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이들까지 무애가를 따라 부를 정도로 쉽고, 같은 음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대신 다양한 불교의 내용을 삽입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어느 순간에라도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불렀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큰 바가지를 가지고 노는 춤으로 예상되니 그 리듬도 느린 장단에서부터 약간 빠른 장단까지 두루두루 섭렵하며, 선율은 밝고 경쾌하면서 신나고 재미난 민요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그 후렴은 '나무아미타불' 이었을 것이다.

민요는 주로 메기고 받는 부분 내지 선창 · 후창〔후렴〕의 구조로 2인 이상의 무리에서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받아서 후창을 하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소절씩 메길 수도 있다. 등장인물이 노래대사로 주고받으면서 극적인 현장을 이루기에 가장 원초적이고 소박한 가창극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원효가 불교의 내용을 삽입해서 혼신을 다해 신명나게 선창을 하면 청중은 감화의 화답으로 '나무아미타불' 을 부르며 집단의 신명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2) 가무의 기능

원효가 대중 교화 수단으로 사용했던 無碍歌舞는 큰 바가지와 歌舞를 동시에 사용하는 바가지춤이었다. 그러나 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는다. 無碍舞의 유래에 대해 『高麗史』 樂志에서는 '無碍之戱出自西域' 이라 하고, 그 가사는 '多用佛家語' 라 하여 西域에서 전래된 佛敎樂舞에 영향을 받아 원효의 창시로만 돌릴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7] 이에 대해 梁在淵은 "無碍戱는 재래의 민족오락적인 유희였던 것을 원효가 불가의 처지에서 변개한 것으로 볼 것이며, 내용에 있어서 후래의 단순 소박하던 것이 불교문화의 그것으로 윤색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서역으로부터 전래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오늘 날에 있어 이 연희가 민족고유의 것"이라 주장했다.[8]

채희완은 무애무의 연원을 광대춤으로 보고 병신춤 내지 거지춤의 일종으로 추정했다. 그것은 관념적인 불교교리를 민중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뒤바꾸어 전파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한다.[9]

本考도 무애무의 연원으로 소위 광대들의 병신춤, 거지춤의 허튼춤으로 보는 바이다. 대신 '바가지' 를 들었을 뿐이다. 병신춤은 허튼춤의 한 유형으로 허튼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즉흥적으로 추는 춤, 즉흥무라 한다.[10]

즉흥은 지식의 세계나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 틀에 의하지 않고 초자아적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즉흥은 한국 민속춤의 한 특성이다. 한바탕 난장의 춤판이 형성되면 自他가 신명나게 춤을 춘다. 이때 병신춤은 춤을 추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신명 속에 빠져들게 하여 흥을 자아내며 참여를 유도한다. 생활에서 겪는 온갖 고통과 갈등의 응어리를 푸는 해방의 장이자 신명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원효는 이러한 광대들의 춤에서 '一切無碍人이 生死를 벗어나는' 解脫과 解放 그리고 신명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만의 독특한 난장의 세계로 佛陀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승화시켜 生死에 자유자재한 無碍舞로 응축시켰을 것이다.

3) 강창의 기능

원효도 어려운 불교 교리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불

7) 이두현, 「無碍戱와 空也念佛」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6집, 新羅文化宣揚會, 1985.
8) 양재연, 「無碍戱小考」, 文耕創刊號, 中央大學報, 1955.
9) 채희완,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사, 1985.
10) 韓國民俗辭典編纂委員會, 『韓國民俗大辭典』, 民俗文化社, 1991.

교 고사나 설화 등을 우리의 이야기로 윤색하여 서사 문맥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작중인물들의 행동이나 표정까지 해학적으로 연출해냈을 것이다. 특별한 무대장치와 배역 및 분장도 필요 없다. 동네 안팎의 광장이나 시전 등 다소 관중이 모인 공간이면 족할 뿐이다. 청산유수와 같은 재담과 익살로 청중을 감동 감화시키면 무애가무를 곁들여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신명난 난장의 세계로 이끌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원효 一人에 의해 연희되고 연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를 따르며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다수의 청중은 등장인물로 출연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무애가무극의 자유롭고 광범위한 강창의 기능으로 인해 가장 민중적이고 보편적인 강창극으로 승화되는 면모이다. 강창극은 경제적으로 축소·확대가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고 능소능대한 연극형태이기에 대화극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실제로 원효의 전기가 포교를 위해 강창극 내지 대화극으로 실연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삼국유사에 수록된 「원효불기」는 신이기적(神異奇蹟)으로 일관된 독특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어 강창대본으로서 충분한 양식과 면모를 가지고 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서사적으로 허구화되어 그 신빙성과 신성성으로 조화되어 있으며, 수범적인 포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히 대중 설법의 현장에서 강창극으로 실연하는데 적합하였으리라 보여지는 것이다.[11]

4. 결 론

원효는 自他가 본래 맑고 깨끗한 一心眞如의 세계로 나아가 모든 논쟁을 和會하는 화쟁을 근거로 교조적이고 낡은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전국 방방곡곡을 유행하며 민간에 유행하던 민족 고유의 연희를 차용하여 무애가무극이라는 종합적이고 통속적인 불교연극으로 승화시켜 연희함으로써, 미망에 휩싸인 서민들과 하나 되어 '신라의 불국토화'를 실현하려 했다.

오늘의 한국 현대불교가 궁극에 지향하고 실현시켜야 할 정상은 원효가 실현하려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원효가 온몸을 불태워 불교 대중화에 정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열차게 수행정진하며 불교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불교 대중화의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일연, 『三國遺事』 卷四 義解, 第五 「元曉不羈條」.
- 『高麗史』 樂志 卷25 樂2.
- 찬녕, 「唐新羅國黃龍寺元曉條」 『宋高僧傳』 卷24.
- 경일남, 「講唱文學의 戱曲的 展開」 『語文硏究』 제21집, 語文硏究會, 1991.
- 사재동, 「韓國戱曲史硏究序說」 『語文硏究』 제18·19집, 語文硏究會, 1988·1989.
- 양재연, 「無碍戱小考」, 文耕創刊號, 中央大學報, 1955.
- 엽덕균, 『宋元明 講唱文學』, 河洛圖書出版社, 1978.
- 이두현, 「無碍戱와 空也念佛」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제6집, 新羅文化宣揚會, 1985.
- 채희완,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 한길사, 1985.
- 韓國民俗辭典編纂委員會, 『韓國民俗大辭典』, 民俗文化社, 1991.

11) 사재동, 「韓國戱曲史硏究序說」 『語文硏究』 제18·19집, 語文硏究會, 1988·1989.

법을 가진 자

편집부

단지 경전의 한 구절만을 알고 있는 비구가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재일(齋日)이면 이것을 읊곤 했는데, 그때마다 숲의 정령들은 그를 칭송하였다.
진리의 구절들을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비구들도 같은 숲에 가서 진리를 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숲의 정령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실망한 그들이 붓다에게 와서 이 일을 고하였을 때,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들은 것이 적어도 몸으로 법을 보고
법을 소중히 하는 이가 법을 가진 자니라.

-『법구경』「주법품(住法品)」 중에서 -

옴 아마라 검제이니 사바하

(곡식과 과실이 번성하게 해주는 진언)

편집부

좋은 과실을 얻고 싶다면 과일 나무를 심고,
때에 맞추어 물을 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마침내 달콤한 과실을 먹게 된다.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

소통의 길을 향하여

- 비구니회 유럽연수기 -

정 운 / 시인, 보령 세원사

전국비구니회가 주관하는 유럽연수가 지난 2007년 7월 17일에서 8월 1일까지 있었다.

처음 함께 연수에 동행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에게는 주변의 잡다한 일상을 떨치고 나선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동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떠남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만나는 길이고, 나를 만나는 길은 하나의 소통이며 소통은 치유의 길이기 때문이다.

동행하기로 한 이유의 하나는 견문을 넓히고 또 다른 세계에 몰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심 따로 있었음을 밝혀둔다.

정확하게 나는 운문사 14기로 80년도에 졸업을 했다. 그 이후 명성회장스님을 모시거나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늘 마음으로 운문사를 생각하면 풋풋한 20대의 열정이 사뭇 그리워지는 곳이고, 그곳에는 명성회장스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리움에 그리움을 더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명성회장스님과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스님과 오랜만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이 더 큰 이유였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에, 한동안 자리를 비워도 틈이 나지 않게 마무리 단속을 하

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인천공항에서 선 · 후배님들께 그간의 안부를 여쭙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일행 중 한 명이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다. 그 마음이 그다지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결국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그 일행은 다음날 비행기로 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것은 다른 여행사처럼 일괄적으로 여권을 미리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일인 듯했다.

여행사와의 관계가 출발 단계부터 틈이 나기 시작하더니 순례 길 내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사끼리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우리에게 주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온 정성을 쏟아 밥을 했는데도 평소와 달리 밥이 설어 그날의 초대를 망치는 것처럼, 이 행사를 정말 멋지게 진행하려고 믿는 곳에 맡겼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연수단장님의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지켜보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신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도 불편을 수행이라는 큰 자리로 메웠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무사히 귀국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쯤 그때의 불편한 마음을 까맣게 잊고 제방에서 수행과 가람수호에 정진하실 스님들을 대표하여 나는 우리가 순례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유산과 역사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기행문을 쓰고자 한다.

유럽이라는 큰 덩어리는 비록 종교의 색깔은 다르지만, 신앙과 예술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또 그것으로 표현된 예술을 접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으로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 관한 참관기는 이미 여러 차례 지면으로 다른 스님들이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학술대회 참관 이후 순례한 순서대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

나코, 프랑스 등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스위스 편

❀ 첫째날(7월21일 토요일)

우리 일행은 상업도시이자 아름다운 무역항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3박 4일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스위스 취리히로 출발하였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만년설과 호수,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 및 시골 정경, 잘 정비된 시설과 교통 및 서비스 최고 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는 문화 유적을 가진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라고 할 수가 있다. 수도는 베른(Bern)이며 인구는 약 7,25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시로는 취리히(Zurich), 제네바(Geneve), 로잔(Lausanne), 루쩨른(Luzern) 등이 있다. 이 중 취리히와 로잔이 우리의 순례 코스이다.

취리히는 스위스 제1의 도시로서 경제, 상업,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며 국제도시로서 명성이 높은 도시이다. 이 도시는 취리히 호수와 리마트 강을 사이에 끼고 개발된 전형적인 스위스 풍경을 이루고 있는 녹원도시이다. 이미 이천 년 전 로마시대 때부터 지리적인 유리함을 살려 세관 취리콤(현 린덴호프)이 설치되었는데 현재의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도시의 내력은 칼 대제와 관련된 것이 많고, 14C 초 루돌프 브룬에 의하여 길드조합정부가 들어섰고, 1351년에 스위스 연방에 가입하였다. 특히 한스 발트만 시장 때 큰 발전을 가져 왔으며, 16C 초 종교

개혁 당시 쯔빙글리의 활동 본거지이기도 했다. 18C 초 교육자 페스탈로찌의 '가난한 사람에게도 교육을' 이라는 외침을 지지한 도시로 유명하다. 19C 초부터 스위스의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 20C 초 전위예술운동, 다다이즘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본사, 재보험회사 본부, 세계 4위의 큰 증권회사 등이 있으며 도시적 매력을 갖추고 있는 반호프 슈트라세(Bahnhof Strasse)의 쇼핑은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이다.

인구는 338,6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세계의 어느 큰 도시 못지않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이다. 사자가 취리히의 상징이며 호수의 분 옆에 동상이 있다.

관광명소는 중앙역[1871년 낙성의 호화로운 역사], 반호프 슈트라세[쇼핑 거리], 톤할레[전통적인 음악홀], 프라우 뮌스터[수도원], 성피터 교회, 린덴호프[로마시대 세관], 마이센 길드 회관[바로크 건축]이 있다고 현지 가이드가 설명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차 안에서 설명만 듣고 스쳐 지나는 곳이 되었다.

관광명소를 스쳐 지나오면서 그 뒤를 이어 해야 할 것은 먹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다.

스님들을 위한 식탁은 늘 채소이고 그걸 우린 또 원한다. 그래서 늘 순례길에서도 현지 식보다는 우리식을 권유해 주는 것이 가이드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 안내를 받은 곳은 그곳에서 유명한 한식집이었다.

집 나와서 입맛 타령하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입맛에 맞지 않는 된장찌개였다. 모두들 지구 반대편에서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릇을 비우기는 했다. 그래도 수행자이니까.

취리히에서 점심공양 후 로잔으로 이동하면서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한 이향순 교수의 소개로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여 달리면서 늘 그림과 영화로만 보아왔던 알프스 산맥에 녹원이 짙은 호수, 화가는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기가 힘들 것이고 시인은 보는 것도 그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묘사를 할지,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벅찬 풍경들이었다. 가는 도중 이베동 러샤텔 호숫가에서 잠시 내려 맛있는 치즈와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갖자고 하여 내렸는데 왕소금만한 우박과 소낙비가 내려 그 꿈은 깨졌다. 큰 나라여서 그러한지 빗줄기도 참으로 컸다. 하지만 작은 쇼핑가에서 스위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칼과 시계 등의 상품을 완상할 수 있어 나름대로 괜찮은 하루였다. 쇼핑거리에서 나온 나를 불러 예쁜 볼펜을 쥐어 주던 성정스님, 이것으로 시 많이 쓰라고 하면서 선배다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다.

❀ 둘째날(7월22일 일요일)

고속도로 휴게소 위 아주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우리 일행은 로잔으로 향했다.

로잔은 레망 호수 북쪽 연안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제네바와 베른, 취리히 방면을 연결하여 떼제베(TGV)로 파리(Paris)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호반의 우시(Ouchy) 지구와 언덕 위의 중심가로 나뉘며, 미니 지하철이 이어주고 있다. 구 시가지에 대성당이 우뚝 솟은 역사의 마을로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박물관이 있는 올림픽 도시로 알려져 있다. 많은 미술관이 여기 저기 있으며 음악과 발레 등 예술 활동이 활발한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로잔의 일정은 '법계사' 라는 사찰을 방문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법계사는 무진스님이 몇 해 전 한국사찰을 만들어 포교하고 있는 곳이다. 교민

들을 위해 명성학장스님의 법문이 일정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무진스님은 캐나다 출신으로 인홍스님의 상좌이며 석남사에서 잠시 본 적이 있는 눈 푸른 스님이다. 이곳 로잔의 조그마한 도시에 사비를 털어 한국 절을 만들어 서투른 한국어로 포교를 하고 있는 보살의 화현이다. 이곳엔 한국 절이 없기 때문에 서너 시간 걸리는 곳에서 법계사를 찾아 법회를 보고 법회날은 모여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했다.

명성회장스님의 법문장소로 마련된 곳은 법계사가 아닌 마을회관이었다. 초파일 등 큰 행사는 늘 이 마을회관을 빌려 사용한다고 했다. 법계사가 그냥 가정집을 개조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육바라밀에 관하여 법문을 하셨다.

점심공양을 하기 위해 펼쳐진 식단 위에 마련된 야생화 꽃꽂이는 참 소박했다. 꽃꽂이를 위한 어떤 도구도 필요 없이 그냥 식탁 위에 편안하게 한 묶음 놓여져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 해바라기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꽃꽂이와 어울리는 식단이 바로 비빔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점심 공양 후 우리 일행은 법계사를 잠시 참배하고 교민 신도들이 마련해 준 차량으로 '라뚜쥬' 호숫가를 산책하였다.

이곳에서는 버스기사가 11시간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벌금을 낸다고 하며, 주행 후 2시간마다 20분씩 쉬어야 하는 규칙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또한 버스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린 그 문화에 순종해야 하는 순례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민 불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교민들은 흔쾌히 차량을 보시해 주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저런 마음을 써 준 무진스님, 저녁 공양까지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루쩨른으로 떠나 왔다.

2. 오스트리아 편(7월23일 월요일)

루쩨른에서 하룻밤을 잔 우리 일행은 5시간을 거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도착하였다.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어온 셈이다. 오스트리아는 '외스터히' 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하였다.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 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함으로써 국토는 전쟁 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 산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총 인구는 750만 명으로 대부분이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계나 유대계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공용어는 표준 독일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영어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가톨릭은 오스트리아인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음악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는 인스부르크와 잘츠부르크이다

먼저 인스부르크에서는 황금지붕과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 구 시가지를 순례했다.

✻황금지붕은 헤르초크 프리드리히 거리의 막다른 곳에서 인스부르크의 상징인 양 금빛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지붕이다. 16세기에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아래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만든 발코니 위에 설치한 것으로 궁전 건물의 5층에서 내민 이 지붕은 금박 입힌 동판 2,657개로 덮여 있고, 발코니에는 여덟 영지의 문장과 황제, 왕비상 등이 부조되어 있으며, 벽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다. 그 내부는 올림픽 박물관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는 인스부르크 시를 가로지르는 중심 거리로 북쪽에 보이는 인스부르크를 내려다보는 Nordkette 산의 바위벽의 풍경이 이 거리에서의 산책을 흥미롭게 한다. 이 거리는 신성로마제국 카를 6세의 장녀이며, 남편 프란츠 1세와 함께 통치를 했던 마리아 테레지아 왕비의 이름을 딴 것이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여 제국을 이끌었고,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16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거리는 남북으로 가르고 있으며 시 관광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지나가는 티롤 지역 복장을 한 행인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후 한때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이 거리에는 많은 17-18세기 양식의 가옥들이 고풍스러움을 더한다. 아주 짧게 시내를 둘러보고는 잘츠부르크를 향했다.

잘츠부르크에서 우리가 방문할 곳은 미라벨 정원, 호헨 잘츠부르크 성, 게트라이데 거리이다.(7월 24일 화요일)

1.마라벨 정원 : 볼프 디트리히 주교는 성직자이면서도 평민의 딸이었던 살로메 알트를 너무나 사랑했다. 주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지켰는데 살로메와의 사이에서 10명의 아이들을 낳았으며 1606년 그 가족들을 위하여 잘자츠 강 주변에 알텐아우라는 궁전을 지었다. 물론 카톨릭 종교단체와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末路는 쓸쓸히 요새에 감금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후대의 주교들은 이 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 궁전과 정원의 이름을 마라벨[아름다운 전경]이라고 바꾸었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은 남아 있다.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미라벨 정원은 잘츠부르크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으로 예전에는 궁전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 바로크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미라벨 정원은 아름다운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 꽃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정원 서쪽에는 1704년에서 1718년 사이에 만들어진 울타리로 둘러진 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무대가 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이곳에서 호헨 잘츠부르크 요새의 전경을 올려다 볼 수 있다.

2. 게트라이데 거리 : 잘츠부르크 시내 중심인

슈타츠 다리를 지나 동서로 뻗어 있다. 도시의 상징인 호헨 잘츠부르크 성을 향하여 아름다운 쇼핑가를 이루고 있으며 잘츠부르크의 문화적 특성과 매력이 함축되어 있다.

거리 양쪽으로 보석가게, 꽃집, 옷가게 등과 레스토랑과 커피숍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생가와 15세기에 건축된 구 시청, 대성당과 레지덴츠 성, 미카엘 교회, 프란치스카너 교회, 화랑 박물관 등이 늘어서 있다.

건물마다 가게의 특징을 철판에 표현한 예술적인 수공 간판들이 많이 달려 있어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곳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알려지게 만든 철제간판들은 문맹이 많은 중세시대에 무슨 가게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는데 200년 이상이나 된 것도 있으며, 거리 분위기에 맞추어 현대의 패스트푸드 상점들도 철제간판을 매달아 놓은 것이 참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다. 수공 간판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모차르트 생가 뒤에는 대학 광장과 대학 성당이 있다. 대학 광장에서는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꽃, 약초, 과일, 직접 구운 빵과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이 거래되는 그린 시장이 열린다.

3. 호헨 잘츠부르크 성 : AD. 1077년에 지어진 요새로 Leonhard von keutschach 대주교에 의해 AD. 1500년 경에 대대적인 확장공사가 있었고 1681년에 와서 현재와 같은 완전한 요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유럽 중부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요새로 손꼽힌다. 한때는 감옥, 군부대로 사용되었다. 성 안에는 대주교의 거실과 각종 무기류, 고문기구, 성이 지어졌을 당시 있었던 가구, 수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조그마한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선물가게가 자리하고 있다.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호헨 잘츠부르크 성에서 잘츠부르크의 시가지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벨 타워(Bell Tower)이다. 우리는 도보로 오를 수 있었으나 189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트로페를반이라고 불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성 정상까지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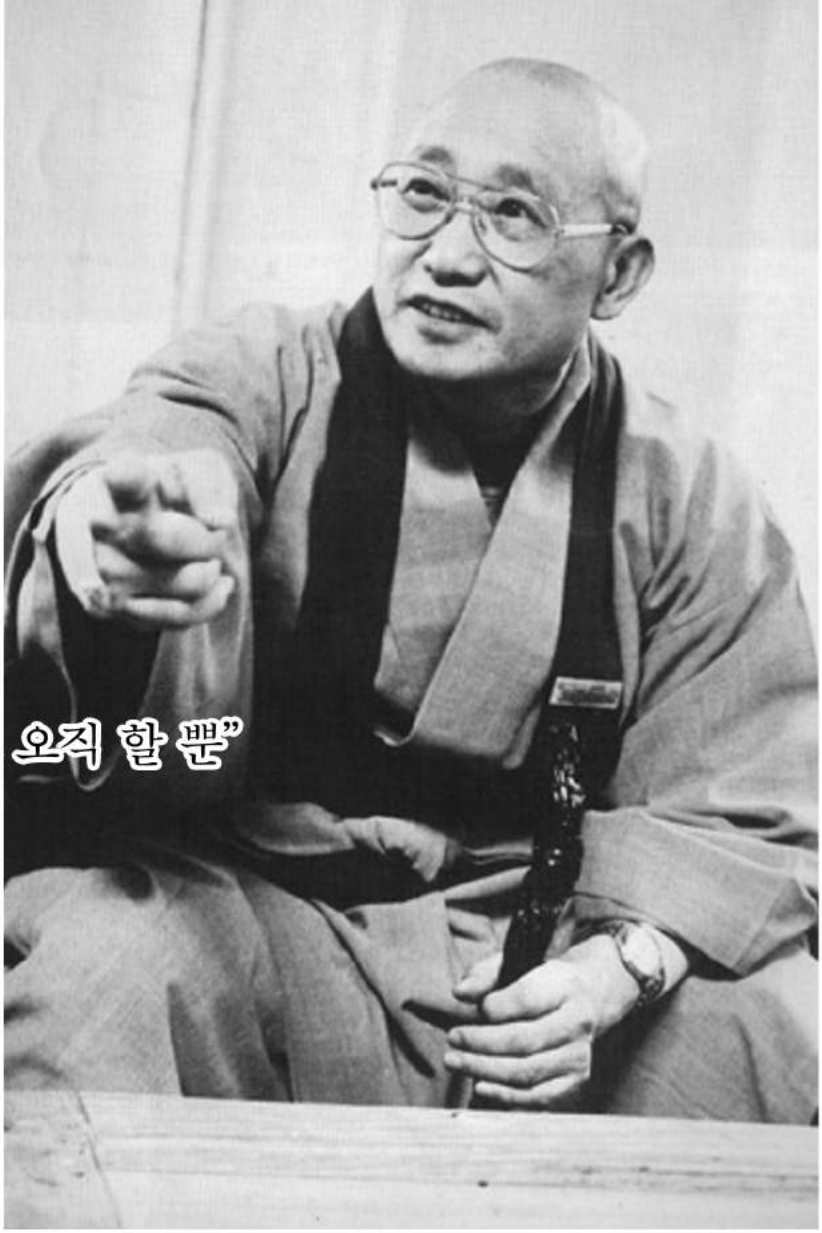
성 안에는 슈베르트의 '보리수'의 배경이 되었던 우물가와 보리수나무가 앞마당에 있다. 우물은 깊이가 상당하여 빗물을 저장하는 곳이라 하며, 보리수나무는 250년이 되었다고 한다 .

이곳 사람들은 감기가 걸렸을 때 보리수 열매를 차로 달여 먹으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이 요새에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서의 트랩 대령의 저택을 조망할 수 있는 고풍적이며 웅장한 곳이기도 했다.

4. 모짜르트 생가 : 모짜르트의 가족은 그가 열일곱 살이던 1773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모짜르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과 그의 자필 악보, 가족 초상화, 서신 등이 전시되고 있다. 1층에는 그가 생전에 상용했던 침대, 피아노, 악보 등이 있으며, 2층에는 모짜르트 외 그의 오페라, 3층에는 모짜르트의 가족들, 4층에는 잘츠부르크에서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장대비가 내려 명성회장스님과 몇몇 스님만이 방문하였다. 간단하게 점심 공양을 하고 우리는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했다.

- 다음 호에 계속 -



"오직 모를 뿐 그리고 오직 할 뿐"

원 효 / 사미니과

싸늘해진 날씨로 나무의 잎사귀들은 낙엽이 되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늦가을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처럼 발길은 한없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던 나는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어느 한 사찰의 수련회에 참석했다. 수련회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리는 산행을 가게 되었다. 그러다 함께 가신 스님과 걷게 되었는데 그 스님을 통해 난 숭산 큰스님의 입적소식을 듣게 되었다. 세 걸음을 채 내딛기도 전에 나는 말 그대로 통곡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다. 출가 결심을 하고, 출가 전에 꼭 친견하겠다고 수련회에서 얼마나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던가. 드디어 용기를 내었건만 이 수련회를 며칠 남기지도 않고서 나는 이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2004년 12월 1일의 일이었다.

숭산 큰스님.

스님은 1927년 평남에서 태어나 일제시대와 해방 후 혼란기의 시대를 보내셨다. 식민과 해방,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데올로기 시대의 과정에서 세상에선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셨다. 처음엔 출가의 마음 없이 단지 동서양철학에 심취하셨으나 이 모든 학문은 스님이 갖고 있던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다. 이후 스님은 마곡사에서 출가해서 경허, 만공, 고봉

선사로 이어지는 법을 이어 받으셨다. 그때 고봉선사와의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다. 고봉 큰스님은 숭산스님에게 인가해 주시기 전, 눈에 눈물을 고이고 환히 웃으며 숭산스님을 얼싸안고 말씀하셨다. "네가 꽃이 피었는데, 내가 왜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느냐?"

그 이후, 불교정화운동에 힘쓰시다가 우연히 동국대 기숙사를 지으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본군 유골이 무려 3천 여구가 나온 것을 보고 일본에 적대적이었을 시기에 이 유골을 버리지 않고 잘 모셔 49재를 마치고는 모두 일본으로 보내 주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일본의 스님들과 정치인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일본에 가게 되셨고, 드디어 해외포교를 시작하시게 되었다. 이후 홍콩, 미국, 폴란드 등 지금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세계 30개국 120여 곳에 선원을 세워 약 5만 명의 외국인 제자를 키우시고, 2004년 11월 30일 세수 78세(법랍 57세)로 입적하셨다.

스님의 삶은 참 단순하고 유연하셨다. 미국 포교 초기에 세탁기 수리공으로 일하시면서 미국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 배우셨다. 종단의 중요한 위치에 계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전하는데 스님은 스스로를 낮춰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제자를 위해 국수를 만들어 주시고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렇게도 순수하게 기뻐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할 때면 늘 귀를 기울여 주셨고, 편지가 오면 읽으시고 모두 답장을 해주셨다. 사람들은 그런 스님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제자가 스님께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 스님은 이렇게 답장하셨다.

"그런 것(슬픔)은 느낌일 뿐이다. 느낌은 느낌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그대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슬픔을 떨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도 그와 똑같은 슬픔이 찾아 올 것이다.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라. 그 울음이 그치고 나면 후련해질 것이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자아를 깨닫기 바란다. 그 진정한 자아가 바로 언제나 청정하고 순수한 가치이다. 만일 청정하고 순수한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면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렴."

나 또한 고통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늘 삶 자체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감사는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만난 분이 숭산스님이었다. 스님은 늘 "오직 모를 뿐"이란 마음을 간직하라 하셨는데 이 가르침은 또한 "오직 할 뿐"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밥을 먹으면 오직 밥만 먹고 운전을 하면 오직 운전만 할 뿐이다. 거기에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만난 큰스님의 가르침이 그리도 행복했고 반가웠다.

불자가 아니었던 내가 갑자기 출가한 것은 이런 가르침 때문이었다. 지금도 출가한 것에 조금도 후회가 없다. 이제는 고통의 문제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져서 숭산 큰스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느 처소에서건 큰스님을 친견하고, 가르침 받기를 발원한다.

가을 산행

아 원 / 사미니과

도(道)

– '사이에서 사유하기' –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고미숙 / 고전평론가

내,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명심(冥心,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잗달아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가 말에 밟혀서 뒤 수레에 실려 온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송거리고 앉았다. 한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궤석에서 앉았다 누웠다 하며 생활하는 것 같았다.

연암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 그 절정이자 대단원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폭우로 범람한 강을 하룻밤에 아홉 번이나 건너면서 연암은 '이제야 비로소 도를 깨우쳤노라' 고 소리친다. 그가 말하는 도는 명심(冥心)이다. 명심, 말 그대로 '어두운 마음' 이다. 도가 어두운 마음이라니, 웬 선문답? 도를 깨치면 눈이 밝아져 사방천지가 훤히 드러나야지 다시 깜깜해지다니 말이 되는가? 하지만 이게 바로 연암이 즐겨 구사하는 역설적 어법이다.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말하는 명심은 '이목(耳目)의 누(累)' , 곧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분별을 내려놓는 그 순간, 목전에 펼쳐지는 깊은 적막과 평정, 연암은 그것을 '눈과 귀' 가 사라지는 '어둠' 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암은 실로 역설의 대가였다. 통념(봉상스)이 일의적 방향을 취함으로써 동일성의 질서에 기여한다

면, 역설〔패러독스〕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을 취함으로써 통념이 구축한 동일성의 기반을 와해시킨다. 연암의 사유가 유학의 경계를 넘어 불교적 구도에 육박해갔던 동력 또한 그것이었다. 「일야구도하기」는 바로 그러한 구도적 열정의 산물이다.

「일야구도하기」가 분사하는 이 '열정의 패러독스'를 좀더 음미하기 위해선 이 글이 탄생된 맥락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무릇 하나의 텍스트는 그것이 놓여 있는 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의 연쇄를 만들어 내는 까닭이다. 주지하듯이, 이 글은 『열하일기』「산장잡기」편에 실려 있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쾌적한 산책로나 고독한 서재, 적막한 산사가 아니라 길 위에서, 그것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길은 '사이'에 있다!

1780년, 부도 명예도 없이, 젊은 날을 함께 했던 벗들마저 사방으로 흩어져 우울한 심사로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던 연암에게 드디어 중국여행의 기회가 찾아왔다. 삼종형 박명원이 건륭황제의 만수절〔70세 생일〕 축하 사절로 가게 되면서 연암을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동반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총 소요시간 6개월, 장장 3천 리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행의 기록이 『열하일기』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연암은 동행자에게 묻는다. "그대, 길을 아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한다.

"이 강은 바로 저들과 나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곳일세.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길이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이'에 있는 것이지."

길은 강과 언덕 그 사이에 있다?! 그럼, 사이란 무엇인가? 사이는 중간이 아니다. 절충이나 통합은 더더욱 아니다. 굳이 규정을 하자면, 이것과 저것, 양변을 떠나 제3의 변이형을 만들어 내는 생성의 과정 혹은 방향도,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선분을 만들어 내는 차이들의 향연이다. 이름하여 '사이에서 사유하기!' 연암은 강을 건너면서 자신이 평소 갈고 닦았던 이 테제를 화두로 던진 것이다. 그리고 여행 내내 이 화두를 놓치지 않았다.

애초의 목적지는 연경. 연경까지의 거리는 약 2천 3백여 리. 멀기도 하려니와 중원의 변화무쌍한 기상이변은 가공할 수준이었다. 살인적인 무더위, 주먹만 한 빗방울, 산을 뒤엎을 듯한 파도 등등. 그래서 강을 건너 요동으로, 요동벌판을 지나 성경〔지금의 심양〕으로, 다시 성경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여정은 모험의 연속이었다. 특히 연암은 몸집이 비대할 뿐 아니라 더위를 심하게 타는 체질이라 그 괴로움은 이루 헤아릴 바가 아니었다. 게다가 천신만고 끝에 연경에 도달했건만, 맙소사! 황제는 연경에 있지 않았다. 동북부의 요새지인 열하의 피서산장에 가 있었던 것. 하지만 누구도 열하로 가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은 길섶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숨겨 놓는다 했던가. 잠시 숨을 돌리고 본격적으로 연경유람을 나서려던 차, 느닷없이 한밤중에 열하로 떠나라는 전갈이 당도했다.

연경에서 열하까지는 다시 칠백 리. 연암은 비공식 수행원이라 가지 않아도 무방한 처지, 그래서 잠시 머뭇거린다. 저 아득한 미지의 땅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유유자적하면서 연경유람을 할 것인가. 조선인으로선 최초의 발걸음이라는 삼종형의 설득에 마침내 열하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변방의 아웃사이더 연암과 열하라는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과의 마주침! 18세기 지성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열하로 가는 길은 혹독했다. 지세의 험준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장마 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강물들은 사정없이 넘쳤다. 더 끔찍한 건 시간이었다. 만수절 행사에 대어가려면 일정이 실로 빠듯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전령사들을 보내 계속 재촉을 해대지, 강물들은 범람하지, 결국 일행들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무박 나흘'로 달려가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암의 견마잡이가 말굽에 발을 밟히는 사고가 발생한다. 연암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뒤에 남겨두고 스스로 고삐를 잡는다. 앞에 인용한 대목에서 '지금 내 마부가 말에 밟혀서 뒤 수레에 실려 온다.'는 문장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 결국 장성을 넘을 땐 연암 혼자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야삼경, 연암의 손에 들었던 등불마저 바람에 꺼져버렸다. 오직 한 줄기 별빛에 의지하여 동북부의 관문이자 요새인 '고북구'를 통과한다. 그때의 경험을 글로 옮긴 것이 '오천 년 이래 최고의 명문장'이라 일컫는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다. 그리고 고북구를 통과하고 나자, 그야말로 본격적인 대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룻밤에 무려 아홉 번의 강을 건너야하는 대모험이. 「일야구도하기」가 탄생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삶과 죽음, 그 '사이'를 가로지르다

이런 '로드 무비'를 배경으로 두고 다시 음미해 보면, 이 글은 그야말로 치열한 구도의 산물이다. 굶주림과 잠 고문 속에서, 또 생과 사가 교차하는 위기의 순간임에도, 연암은 그 상황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다. 즉,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미지[망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1만 대의 전차, 1만 명의 전투기병, 1만 문의 대포, 1만 개의 전고(戰鼓)로도 우르릉 쾅쾅 무너뜨려 짓누르고 압도하는 듯한 물소리를 형용해 내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가 옛날 전쟁터라서 강물이 저렇게 우는 거야." 하지만 연암이 보기엔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 예컨대, "깊은 소나무 숲이 퉁소 소리를 내는 듯한 건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건 성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건 교만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만 개의 축(筑)이 번갈아 소리를 내는 듯한 건 분노한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천둥이 날고 우레가 번쩍이는 듯한 건 놀란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찻물이 보글보글 끓는 듯한 건 흥취 있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거문고가 우조로 울리는 듯한 건 슬픈 마음으로 들은 탓이요, 한지를 바른 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건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탓이다." 오, 이 변화무쌍한 은유의 퍼레이드! 결국 이는 모두 이미 '마음'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가지고 '귀'로 들은 것일 뿐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요동 벌판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절대 성난 소리로 울지 않아." "모르는 소리!" 요하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다만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낮에는 강물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어 벌벌 떠느라 '눈'이 있다는 걸 근심으로 여긴다. 그러니 어찌 귀에 들리는 게 있겠는가. "만약 지금처럼 한밤중에 강을 건너면 위험은 오로지 듣는 것에만 쏠리고, 그 바람에 '귀'는 두려워 떨며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경로를 거쳐 연암은 마침내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즉 이목이 구축해 놓은 분별이 사라질 때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때 분별은 곧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잠깐만 삐끗해도 목숨이 위태로운 아슬아슬한 순간, 그때 만약 삶에 집착하게 되면 강물은 공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상과 주체 사이에 선명한 경계가 그어지기 때문이다. 그 경계에 갇혀 있는 한 공포는 더더욱 커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몸은 뻣뻣하게 굳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순간 물과 나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런 적대적 관계로부터 해방되려면 무엇보다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먼저 나에 대한 집착, 곧 아상(我相)을 버려야 한다. 그리 되면 당연히 나 아닌 외물에 대한 고정된 상도 버릴 수 있다. 그 순간 나와 외물 '사이에서', 나도 아니고 외물도 아닌 전혀 다른 '관계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즉 '물이 땅이 되고 물이 옷이 되고 물이 몸이 되고 물이 마음'이 된다. 이것은 실로 역설의 범람이다. 나를 여읨으로써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터득한 변이 혹은 생성! 여기가 바로 연암이 도달한 도의 경지이다.

잘 알고 있듯이, 『열하일기』는 북학파의 대표적 저서다. 그에 걸맞게 조선의 낙후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이용후생적' 지식과 중원을 둘러싼 세계문명에 대한 고담준론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연암의 탐구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존재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구도적 열정이 그 모든 탐색의 기저음으로 깔린 것이다. 그러므로 『열하일기』 도처에서 진리표상의 근원적 무상성,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간극, 탈주체화와 우주적 소통 등의 테마를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야구도하기」는 특히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물론 그가 설파하는 도가 '공(空) 혹은 연기법'이라는 불교적 가르침과 얼마나 잇닿아 있는지, 어떻게 만나고 어디에서 헤어지는지, 나의 깜냥으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건 그가 생사의 번뇌, 그 한복판을 가로지르기 위한 구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뿐!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한동안 연암이 말하는 명심(冥心)이나 도를 유심론, 곧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다. 마음을 인식주체의 주관이나 심리적 현상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지대한 착각이요 오해다. 여기서 마음이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리될 수 없는, 독자의 영역이 없이 주관과 객관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어우러져 결코 명사화될 수 없는 '존재의 장'을 뜻한다. '마음'이란 이런 '존재의 장'을 표현하는 하나의 약속 언어일 뿐"(현응스님, 『불교와 사회』 중에서)이다. 그런 점에서 유교건 불교건, 근대 이전의 공부가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마음의 이치와 우주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20세기 들어 근대적 지식은 이 마음을 심리학, 정신분석학 등의 범주 속에서 가둬버렸고, 그 결과 마음과 몸, 주체와 객체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이고 말았다. 그에 따라 객관세계에 대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건만, 존재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은 완전 봉쇄되고 말았다. 현대인들이 '마음의 거처'를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 건 이 때문이다. 이 무명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마음과 몸이 둘이라는 전제부터 타파해야 한다. 마음과 몸은 하나요, 그것이 곧 우주다.

실제로 최근 뇌 과학은 이 점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몸과 정신을 분리했던 데카르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마음과 몸, 뇌'를 하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고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동양의 고전과 최첨단 과학 사이의 마주침을 예고하는 징후라는 점에서 실로 의미심장하다. 달라이 라마와 신경과학자들의 토론을 담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라는 책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아마도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마주침 속에서 산출될 터이다.

연암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구도적 여정이 나를 여전히 흥분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끊임없이 나를 분발시킨다. 유교와 불교 사이, 불교와 과학 사이, 존재와 앎 사이, 그 '사이에서 사유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고미숙 님은 1960년 강원도 정선에서 출생했다. 고려대에서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지식인공동체 〈연구 공간 수유+너머〉에서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나비와 전사』,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등이 있다.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의 손

신 영 복 / 현 성공회대 석좌교수

-에는 아기를 업고, 양손에는 물건을 들고, 머리에는 임을 이고, 그리고 치맛자락에 아이
을고 걸어가는 시골 아주머니를 한동안 뒤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의 일이었습니
무거운 짐에다 아기까지 업고 있는 아주머니의 고달픔도 물론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머리 위의 임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
는 띠로 동였고 양손의 물건은 손으로 쥐고 있어서 땅에 떨어질 염려는 없었습니다만
리에 올려놓은 임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비뚜름하게 머리에 얹혀서 발걸음을 떼어
을 때마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흔들리는 임은 어린 나를 내내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저 아주머니에게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어린 아이였던 내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다. 나는 그 뒤 훨씬 철이 들고 난 후에도 가끔 '또 하나의 손'에 대하여 생각하는 버릇
을 갖고 있습니다. 3개의 손, 4개의 손, 수많은 손을 가질 수는 없을까. 짐이 여러 개 일 때나 일손이 달릴 때
면 자주 그런 상상을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아침에 찬물 빨래를 할 때에도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여벌의

손 두 개만 있더라도 시린 손을 교대로 찬물에 담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천개의 손을 가진 천수보살(千手菩薩)의 후불탱화(後佛幀畵)앞에서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천개의 손' 수많은 짐을 들 수 있는 손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차피 두 개의 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손을 갖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많은 손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도 하고 많은 손을 부리기 위하여 높은 지위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철학을 우리는 이미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수관음보살의 손을 자세히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 개의 손에는 천 개의 눈이 박혀 있었습니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이었습니다. 그냥 맨손이 아니라 눈이 달린 손이었습니다. 눈이 달린 손은 맹목(盲目)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손입니다. 마음이 있는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많은 손을 가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있는 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직이 망라하고 있는 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입된 수많은 손도 역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은 누군가의 살아 있는 손이고, 그 손에는 모두 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의 집합과 집합의 규율과 규율에 의한 조직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제왕 한 사람의 무덤만을 남기고 사멸해간 과거사에서 한 발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대한 신세계』의 '감마계급' 이나 '복제인간(複製人間)' 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의 임자에게도 많은 손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 개의 손마다 각각 천 개의 손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 개의 손에 각각 천 개의 손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논리학인 수학은 언제나 등식(等式)을 기본으로 합니다. 평등의 철학 위에서 문제의 해답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집합과 규율과 연대를 넘어서 천 개의 손이 서로 '소통(疏通)'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로섬' 에서 '비약' 으로 가는 길이고 '뺄셈' 에서 '곱셈' 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많은 보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론의 문수보살, 실천의 보현보살, 사랑의 미륵보살. 아마 천 개의 보살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살은 중생들의 수많은 모습을 하나하나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모든 보살의 총체가 바로 부처님의 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또 다른 집합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소리〔世音〕를 듣는다〔觀〕' 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는 물론 많은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귀를 가진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자가 권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정보(情報)' 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소리입니다. 누군가의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손에 눈이 달려 있는 까닭이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질책을 무릅쓰고 천수보살 이외의 보살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릴 때의 간절했던 그 '또 하나의 손' 이 짐을 들어주는 손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손이기를 바랍니다. 천수보살의 손이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다정한 '악수' 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손만이 삶의 양(量)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質)을 높이려고 하는 허구를 걷어 내고 그 자리에 '사람' 과 '사람들' 의 얼굴을 되찾아 주리라고 믿습니다. 경쟁상대로 팽팽히 켕겨진 시장이 아니라 우정이 소통되는 세상을 이루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대해(大海)처럼 든든한 것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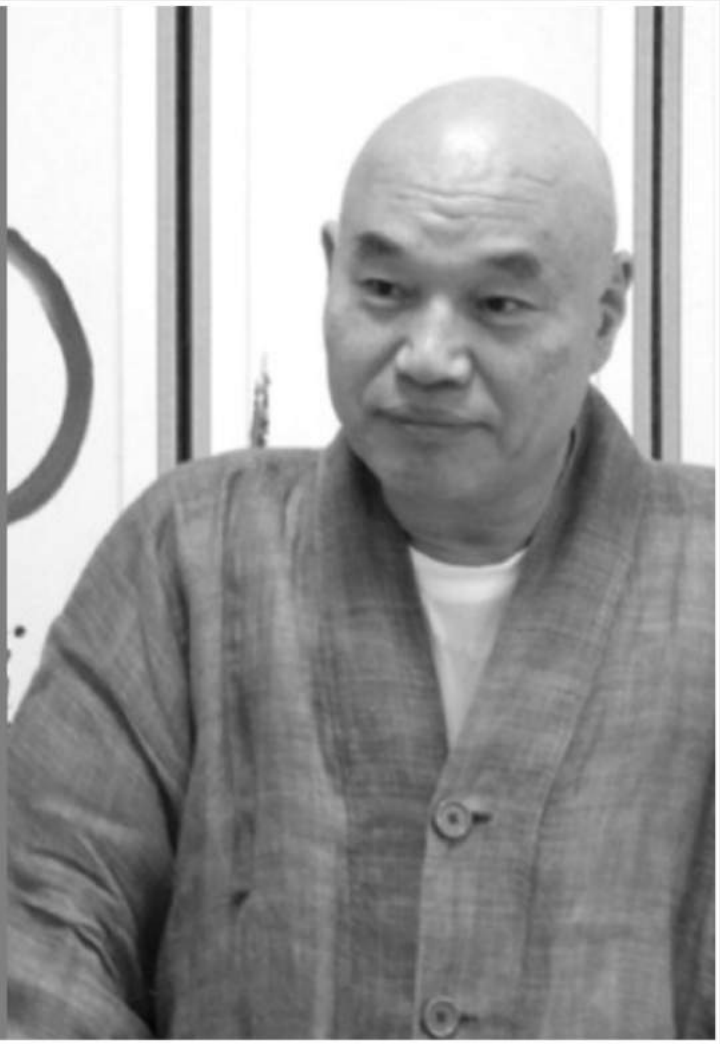
그대가 바로 부처라

- 범어사 무비 큰스님을 뵙고 -

성 화 / 사교과

대덕아! 무엇을 찾느냐? 지금 바로 눈앞에 법문을 듣는 그 사람,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은 무의도인(無依道人)은 너무도 분명하고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할아버지 부처님(祖佛)과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보면 되다. 의심하여 그르치지 말라.

— 『임제록』 중에서 —



차돌같이 단단하고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다 하여 '차돌능엄'이라 불리는 『능엄경』을 드디어 끝냈다. 아니 이제야 다시 『능엄경』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모든 것이 버거운 나에게 사교반이 되어 '經'을 본다는 것은, 특히 능엄경을 본다는 것은 마치 눈 덮인 알프스의 최고봉을 넘는 것만큼이나 버겁게 느껴졌다.

경전을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금강경』, 『화엄경』 등의 경전은 물론 조사어록을 번역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은 분들이 틀림없으리라. 우리는 그런 분 중 한 분이신 무비 큰스님을 뵙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범어사로 향했다. 여름방학이라는 즐거움보다도 큰스님을 뵙는다는 설렘이 가슴 한켠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다.

늦은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큰스님 곁에서 30여 년간 스님을 시봉하셨다는 용학스님의 안내에 따라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처소이자 인터넷의 전법도량으로 더 유명한 '염화실'로 들어섰다.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려 "큰스님,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던데 어떠세요?"라고 여쭈자 스님께서는 굵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냥 그래."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신다.

책상과 의자 뒤에 큰 병풍이 놓인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큰 방으로 들어가니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우려내셨다는 백련 차향이 방안 가득했다.

여러 가지 수행 가운데에 특별히 교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들의 가르침이 축적돼 있잖아. 그걸 봐야 일단 불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야.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교학은 섭렵해야 돼. 필수 요건이야. 나는 뭘 알고 선택했다기보다는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경을 공부하느라고 했지.

선지식이란 선지식은 다 만나 뵙고 선방이란 선방은 다 한 철씩 나는 등 참선수행 방편도 간경수행 방편 못지않게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흔히 참선이나 간경이라고만 말하는데 스님께서는 꼭 '방편'이라는 말을 붙이셨다. 어떤 수행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 수행 방편 중에서 교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스님께서는 어떤 경전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걸까?

법화경과 임제록이 있지. 법화경과 임제록에는 불교 교육의 최첨단 가르침, 궁극의 가르침이 들어 있어. 바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가르침.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 별별 방편을 다 쓰지. 그렇지만 그야말로 방편일 뿐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어. 수행은 삶인 거라. 참선은 참선하는 사람의 삶, 간경은 간경하는 사람의 삶. 불교가 좋아서, 참선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것이 부처되는 조건은 아닌 거야. 우린 이미 부처이니까. 임제록에서도 '너희가 무엇이 부족해서 왔느냐, 알고 보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밖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본래 갖추고 있는 대로 그 당체가 그대로 부처라. 그래서 나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지.

불교를 알고, 배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천은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 머리로라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경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다시 여쭈었다.

부처인 우리가 부처의 성품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스님들의 생각에 실천할 게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그대로가 부처라고 하는데 실천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라는 것이 상식적

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점잖고, 자비심이 많고 항상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부처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법화경이나 임제록에서의 부처의 모습이라는 건 본래 갖추고 있는 대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추우면 옷 하나 더 껴입고 더우면 바람을 찾아가는 그 당체가 부처님이고, 이러한 모습이 부처의 실천이고 조사의 실천이야. 부처의 행을 실천한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렵지? 이게 어려워. 이게 궁극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워.

바닥에 오래 앉아 계셔서 힘드셨던지 의자로 옮겨 앉으셨다. 스님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짓는 몸동작은 거대한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능엄경』 뿐만 아니라 『치문』, 『서장』 등의 교과목 공부를 해오면서 학인스님들이 힘겨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한글과 영어만 배운 한글세대로써 한자 자체가 주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시간 대부분을 난자를 찾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쓰다보니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사유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한문으로 경전을 배우는 데 있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었다.

그것 참 잘 물었어.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내가 강원에서 공부할 때나 가르칠 때나 항상 문제 삼았던 것이었고 지금도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외국어 가지고 불교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 불교공부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정신 그 사상을 그대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원에서 한자로 공부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불교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시간 낭비가 많아. 한문으로 공부하는 것은 기본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2과정으로써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한문으로 경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한문으로, 팔리어로 하고 싶은 사람은 팔리어로 전문분야로 나가서 하는 게 옳고,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불교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한글세대에 맞는 불교운용을 한다고 하고 있지. 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전을 번역해 내고 해석해 내야 해. 논강을 하면서 불교의 참 뜻을 이해해 나가야 하고… 격렬하게 논강을 하고 나면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

격렬한 논강이라는 말씀에 전혀 격렬하지도 않는 우리의 논강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격렬하게 논강을 했을까 궁금했다.

논강하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논강을 하셨어요?

다음 날 수업할 범위를 그날 저녁 강통을 흔들어서 중강하고 발기를 뽑잖아. 그럼 한 명도 빠짐없이 준비해 올 거 아냐. 서로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소견이 나오면 박이 터지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새기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논강이 치열해지지. 서로 맞다 틀리다, 이 이론 갖다 대고 저 이론 갖다 대고, 이래도 안 맞느냐 논강 시간 내내… 논강이 새벽까지 가기도 하지. 그러면 중강이 이때 나서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내일 강사스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중재를 해서

정리하는 거지. 발기는 직접 새김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고, 중강은 논강시간에 일종의 사회자야. 그리고 다음 날은 강사스님 앞에서 그 전날 논강시간에 여러 사람이 토론한 의견을 그대로 새기는 거지. 여기서 중강의 개인적인 소견을 개입시키면 안 돼. 새긴 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새겼냐 하면서 강사스님 앞에 서라도 다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강스님은 논강시간 내내 열심히 메모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그 옛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땅치 않던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겠다는 일념으로 눈을 반짝이며 논강하시는 스님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들의 열정은 다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 급급해서 출가할 때의 초심을 잃고 아무 의욕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불하고, 공양하고, 수업을 받고, 입선을 들여서 스스로 공부하고, 논강을 통해서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 주는 등의 일상이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이 되어 버려서 그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스님의 말씀처럼 이 일상 속의 내가 곧 부처이고, 일상 속의 行이 곧 부처의 실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상의 순간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달리 또 다른 부처될 길이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스님께선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 강원에서 여럿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정말이지 저 어디 가서 탁 엎어졌으면 싶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도 부처님이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받들어 섬기고 존경하고 이해하려 하고, 나에게 아무리 해악을 끼치더라도 모두가 부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라고 여기고 섬기라는 거야. 그를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것밖에 열쇠가 없어. 최후의 열쇠야. 그걸 소화해 내고 결국엔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돼야 해. 그것들이 내 살림살이가 되지 않으면 증노릇 잘했다고 할 수 없어.

스님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말씀을 듣고 있자니 시간은 훌쩍 지나서 거의 여섯 시가 다 되어갔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드신 스님을 너무 오래 귀찮게 해드린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스님을 모시고 마당으로 나서는데 문 앞의 소나무가 푸르다.

이 소나무 좀 봐. 이 나무는 언제든지 보면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이야. 이 나무가 조금 자라고 나서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말라 죽고 말겠지?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야. 얼마만큼 수행을 했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고 나태해지는 건 생명의 흐름에 위배되는 거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지가 명확히 서 있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여러 갈래의 물이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스님께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스님의 말씀은 한 곳으로 모였다. 사람이 부처라는 것!

범어사를 내려오는 길, 스님의 마지막 당부가 귓전에 울린다.

"잊지 말게. 불교의 진리를 얻는 것은 호거산만한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야."

아름답게 산다는 것

-헤르만 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을 읽고-

현 산 / 사미니과

사노라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잠자리에 들고 하는 일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다 문득 주변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마당 앞 나뭇가지에 돋아났던 어린 새싹은 어느새 짙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빨갛고 노란 또는 하이얀 많은 꽃들을 피워 낸다. 그 꽃을 닮은 낙엽이 하나, 둘 제 몸 붙이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쌀쌀한 바람은 그 어느 해 보다 더 추워졌다는 일기 예보를 앞세우며 흰 눈을 쏟아 붓기도 한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들의 계절은 늘 그렇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일상이라 불렸는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의 따스한 햇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빗방울로, 늘 너그러운 대지의 모습으로, 아직도 지금의 일처럼 어린 날의 꿈을 꾸는 나처럼.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땅과 식물을 상대로 일하는 것은 명상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쉬게 해주는 것임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오직 단 하나 중요한 것에만 몰두한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열중하고, 자기 자신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수수께끼처럼 비밀스러운 관계에 열중하는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면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현명한 사람들은 되돌아와 이 일에 몰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한 내면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잡다한 걱정과 갈망, 목표 같은 미망에 사로잡히고 만

다. 그 것들 중 어느 하나도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자신의 내면으로, 진정한 고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예전에 잃어버린 아득한 소리에 대해 명상하고 모색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그 뒤쪽에 있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찾기 위함일지 모른다.

땅에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아 내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헤세는 채소밭에 오로지 녹색의 채소가 영원히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의 종교적 의식을 치르듯이 그 일을 행한다. 또 그는 식물을 가꾸고 좋은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까지도 사랑하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연은 비록 게으른 자, 느긋한 자에게도 마냥 너그럽기에 시금치와 상추로 가득한 텃밭을 선사하고 얼마간의 과일과 즐거운 눈요깃감이 되는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도록 베풀어 준다. 그러나 대단찮아 보이는 관목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자라지는 않는다. 자연은 그것들이 내 자유의지대로 쉽게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바람, 추억, 필연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내게 자연 앞에 겸손함과 수순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헤세에게 정원 일은 명상과 정신적인 소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정원에서 쉬고 관찰하고 사색한다. 풀과 나무와 꽃과 과실, 채소가 가르쳐 주는 자연과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보면 생성을 기다리는 설렘, 생명이 움트는 환희, 흙으로 돌아가는 소멸의 아름다움까지 자연과 생이 만나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그 마음동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관찰하게 해 준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너그럽지만 아무에게나 그 힘을 보여 주지 않는다. 늘 내 안의 선함과 악함, 부지런함과 게으름, 소란스러움과 고요함에 대해 끊임없이 호미질을 하고 잡초를 뽑으며 낙엽을 태워 얻어낸 색색의 고운 재로 양분을 주며, 긴 겨울의 고독함을 묵묵히 견뎌낼 줄 아는 자에게만 그 싱그러움과 화려한 자연의 힘을 선물해 준다. 내 마음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 준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명예를 구하려고 했으며 행운과 지식, 때로는 수명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으려고 했다. 이런 나에게 헤세는 말한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아름답기를 소망한다.
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해월정사, 마음 달〔心月〕을 보이는 곳

효 은 / 대교과

청사포.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아름다운 곳' 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다 싶을 만큼 차가 달맞이 고개의 정점에 다다르자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다. 좀 전의 북적이는 해운대와는 달리 작은 포구 청사포에서 펼쳐지는 바다는 고요하다. 운전기사는 "이 길은 언제와도 기분 좋은 곳입니다. 해 뜰 녘에는 온 세상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하였다.

일출 뿐만 아니라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을 때에도 은빛 폭포가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는 듯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의 바다와 어우러진 청사포에 해월정사가 묵묵히 자리하고 있었다.

해월정사는 성철스님의 맏상좌이자 10년 넘게 행자시절을 보내신 것으로도 유명한 천제스님〔해월정사 회주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곳이다. 스님께 우선 해월정사의 역사부터 여쭈어 보았다.

해월정사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철스님은 해인사 방장으로 추대되신 후 10년이 지난 1977년,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겸 쉴

수 있는 장소를 원하셨다 한다. 천제스님은 거제도나 남해 쪽의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성철스님께서 갑자기 부산의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병원에 계신 동안 청사포 쪽으로 산보를 하시다가 지금의 기념관이 지어진 자리를 "대단히 좋은 터"라고 칭찬하신 것을 듣고 해인사에서도 가까운 이곳에 성철스님의 쉴 곳을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 처음엔 시내와 너무 가까운 것을 이유로 반대하시던 성철스님도 기초공사를 해놓고 다시 모시고 왔더니 특별히 반대하지 않아 휴식처를 지은 것이 지금의 해월정사가 된 것이다.

'해월' 이라고 해라.

"이름을 무어라 할까요?"
"해월이라고 해라"

바다와 달.

"만상이 고요해진 절대의 경지를 대해(大海)라고 하잖아요. 그 경지에서 달을 보이는 것. 즉 마음자리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회주스님이 자상하게 그 뜻을 일러 주신다.

성철스님이 내리신 이 이름은 지금 성철스님 기념관의 간판에 '시월전(示月殿)' 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그 맥을 잇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라 '달을 보이는 곳' . 마음자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도량이라는 성철스님의 유훈을 이어가겠다는 회주스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봉훈관', 성철스님의 친필로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다

법당과 요사채 뒤편으로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성철스님 기념관' 이 자리 잡고 있다.
성철스님은 수시로 해월정사에 머물러 휴식을

취하시면서 불교 교리, 법문의 초고, 서간문이나 일상적인 메모, 수행지침, 그 밖에 중요한 사안 등의 글을 쓰셨고, 평생 남기신 메모를 바로 이곳에 남겨 두셨다. 남기신 친필들은 모두 한국 불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미 60년 전부터 불교 교리의 통일, 가사 색 정비를 비롯하여 봉암사 결사 등으로 수행자의 자세와 진정한 불교의 의미를 되살리려 노력하셨고, 실달학원을 통해 승려의 교육문제에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셨던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이제 친필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봉훈관이라는 이름 역시 이러한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후학들에게 새로운 한국불교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지남(指南)을 제시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철스님의 친필을 통해 단순히 성철스님이 훌륭하고 위대하신 선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훌륭하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의 해월정사,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일 뿐

이전의 해월정사가 성철스님이 오셔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다면 앞으로의 해월정사는 그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지금 성철스님에 대한 책들과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품에 가려 큰스님의 본래 모습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천제스님은 성철스님께서 부처님 말씀과 육조스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스님 역시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성철스님의 친필을 받드는 봉훈관 불사에 집중하신다. 성철스님의 인간적인 모습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리 작업의 중심에 해월정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천제스님이 기억하는 성철스님은 '지극히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셨고 실천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스승'이셨다. 지금 해월정사는 그러한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실천하고 전하려는 곳이다.

지금도 법당에서는 능엄주를 외우는 소리와 절 삼매에 빠져 있는 불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이겨 내라는 성철스님의 소리 없는 가르침이 가득 울려 퍼지는 듯하다. 아마도 이렇게 마음 달을 보이시는 것이리라.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싶을 때, 봉훈관에 모셔진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는 믿음을 안은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그리운 India

청 현 / 대교과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머나먼 여행에 오른 순례길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로 성스러운 땅을 내 딛는 순간
전성기의 찬란함과 웅장함은 역사 속에 묻히고
옛 터만 남은 부처님 세계
당신께서 나투신 거대한 스투파. 석주. 수많은 흔적들.
한결같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충만한 성지의 땅 India
눈 감으며 마음모아 지심귀명례 합니다.

사람과 차. 릭샤. 개. 소 등이 뒤엉켜 가득한 거리
혼돈 속에 그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공존하는 세계
낯선 우리에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주는
호기심 가득한 맑고 큰 눈을 가진 순수한 영혼들
사랑이 그리운 이들이 꼭 다시 찾게 될 India
보고, 느끼고,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그립네.

꿈에서도 부르는 나반존자!

범 찬 / 사집과

나리암을 바라보면, 어깨를 펼치고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거대한 독수리처
! 그 날갯짓이 위엄 있고 강한 힘으로 뭉쳐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희
과 에너지를 품게 한다.
땅 아래 제주도에서부터 반대편 강원도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신도님
이 두루두루 가슴에 크고 작은 꿈을 싣고서 존자님을 뵈러 온다.

오랜만의 산행인지라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만 그 헐떡거림이 그칠 즈음이면 "나반존자… 나반~존자!" 어느 새 메아리처 펼쳐지는 그 신명나는 정근소리에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무척 편안해시고 짙푸른 어깨를 드러낸 사리암이 호거산의 위용과 마주하게 된다.

나반존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저리도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걸까?

나반존자님은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세상이 어려울 때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는 중생을 위해 쌀을 주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큰 원력을 가지신 나반존자님의 염원 때문일까? 운문사의 대중은 존자님 덕에 걱정 없이 수행하며 공부하고 있다. 내가 사리암 소임을 맡아 올라와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반존자님을 찾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수십 년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멀리 있는 가족들을 만나듯 뗄 수 없는 끈끈한 고리처럼 사리암과 인연을 맺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미 기도가 생활이고 마음으로

늘 나반존자님을 염하는 신심 있는 불자님들을 보면서 나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운문사의 대중으로 살면서 나 밖에 모르고, 소임을 소홀히 하거나 경전공부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물론 운문사 전 대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은 있는가? 가까이에 계신 은사스님을 잘 모시고, 도반스님들을 위해 넉넉히 마음 써준 일은 있는가? 시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시주님들의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일까! 기도 부전이었던 나는 장마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부는 그 속에서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비옷을 입고 찾아오는 처사님들과, 손수 장만한 음식을 존자님께 올리겠다고 빗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온 보살님들을 보면서 정성껏 기도하리라 다짐했다.

처음에는 나의 염불소리만 들리던 법당은 어느덧 점점 신심에 젖어든 신도님들과 하나가 된다. 법당이 꽉 차고 밖의 굴법당까지 다 차버린 상황, 굴법당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내리치는 빗물을 감당하기에 힘겨워 보였지만 그 세찬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을 얼굴에서 연신 훔쳐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심과 환희심을 주는 것일까? 안타까움과 감동으로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생각나서 목청이 터져 나가도록 염불을 했다.

나의 부족한 기도가 일념으로 본성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원과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 성취는 물론 그들과 인연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발원했다. 그리고 그 발원이 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사리암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 번 더 기원했다.

난생 처음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목이 붓고 쉬어서 풀어지는 데 열흘 정도 걸렸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금도 나의 마음속엔 이명처럼 나반존자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일까. 소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자면서조차 큰소리로 나반존자님을 불러 대중 스님을 모두 깨워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드는 사태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난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낮이나 밤이나 맑을 때나 비올 때나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신도님들의 신심으로 내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 빛나는 신심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칸첸중가, '나'를 만나다.

자 안 / 대교과

나에겐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계절병이 있다. 무작정 낯선 사람, 낯선 나무, 낯선 집, 낯선 하늘 등 낯선 곳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낯설지 않은 내재된 그 무언가를 갈구하며 배낭 하나 둘러메고 떠나게 되는 계절병이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편한 장소와 자세를 찾아 양수를 헤엄치며 다니는 태아와 같이, 내 마음이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근원적 고독의 고질병 말이다. 하지만 나는 몇 해 전 이런 계절병에 종지부를 찍고 태초의 고향을 만났다.

칸첸중가! 이름만 들어도 그 절박한 비감(悲感)과 환희로움으로 만나는 카타르시스는 충분히 내게 에너지가 되어 준다. 히말라야 봉우리 중에서 칸첸중가는 8,586 m로 에베레스트, K2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이 산은 다섯 봉우리가 십자 모양으로 능선을 지어 만들어 낸 산괴다. 칸첸중가를 주산으로 모시고 그 아래 위치한 아름다운 불국토가 바로 '마지막 샹그릴라'라 불리는 시킴(sikkim)이다. 오랫동안 바깥세상과의 단절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외부인을 허락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시킴만의 색채를 아름답게 잘 보존,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 입국허락서를 지닌 경우에만 7일간의 체류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서류절차와 제한된 체류기간은 뭇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動하게 하고 자극하는 법. 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샹그릴라라는 찬사에 걸맞게 호기심이 많은 여행가들의 끝없는 방문은 계속되고, 시킴도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킴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영원한 카리스마는 바로 칸첸중가이다. 이런 칸첸중가와의 만남을 위해 나 또한 미리 준비한 입국허가서를 제시하고 통제소를 지나야 했다. 드디어 O.K사인이 떨어지고 입성(入城)하는 순간, 가슴 터질듯한 강렬한 기운에 빨려 들어갔다.

서서히 주변을 드러내면서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 향해 뻗어 올린 나무들은 울울창창 높고 기이했다.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히말라야 삼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습한 기후 탓인지 나무를 거쳐 삼아 셀 수 없는 이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울울한 숲의 모습이 웅장하고 당당하기까지 하여 위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의 강대한 위력 앞에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왜소해지고 위축되는 것인지 시킴은 장엄하면서도 여여하게 이방인을 맞이했다.

굽이굽이 오르는 산길을 지나 시킴의 수도 갱톡〔Gangtok 1,700 m〕에 이르렀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상서로운 그 빛줄기를 찾는다. 저 도시 너머로 하늘인지 구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찬란한 우유 빛 덩어리를 느낀다. 설산은 구름에 가려 쉽게 이방인에게 제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름을 거느리고 군림하는 당당하고 웅장한 군주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강렬함이 있다.

우선 게스트 하우스를 찾아 방을 잡고 짐을 풀었다. 꼴까타(Kolkata)에서 출발하여 뉴잘패구리(New Jalpaiguri)를 경유하여 갱톡에 이르기까지 17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이동으로 몸이 피곤할 법도 한데 쉽게 몸을 누일 수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일을 기약할 일이다. 내일은 부디 구름이 걷히길 바라며 ….

다음날 눈을 떠 창가로 뛰어간다. 아니 옥상으로 걸음을 옮긴다.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러나 아직도 설산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광명 가운데 서서히 걷혀지는 구름 사이로 설산이 살포시 모습을 드러내었다. 가히 세상의 중심이자 시작이었다. 천지의 모든 소리가 숨죽이는 듯 찰나에 무념(無念)을 경험한다. '나'란 존재가 사라지고 텅 비어 오면서 무너진 內外경계 가운데 하나로 통하는 이 느낌, 이 通함으로 찾아드는 공허함의 환희로움, 실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폐기시켜 버린다. 경건하고 황홀하며 신성하고 영원한 이 느낌은 광대한 에너지로 내게 쏟아진다. 바라만 봐도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고 숙연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누군가 그랬다.

산이란 본래 오르려는 사람보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욱 극적이라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권능을 가진 실존 그 자체는 쏟아지는 듯 에너지를 품은 카리스마, 내 식(識)의 오랜 여정의 끝.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거대한 아름다움이자 내 전생의 기억을 쓰다듬는 태초적 그리움의 고향인 것이다.

이 찬란하며 눈부신 빛줄기가 내 심장으로 스며들어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감을 느낀다. 그 聖스러운 기운이 이 染汚 덩어리를 휘감고 돌며 본연의 實相자리를 떠올리도록 나를 어루만진다.

아! 이제야 너를 만난다. 아니 '나'를 만난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한다. '진여가 무명에 훈습되어 염심(染心)이 일어나도 자성 청정한 진여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홀연히 일어난 무명은 진여에 의지해 존재하고 生한다는 것이다. 구름에 가려졌지만 감출 수 없는 오라〔aura : 신령스런 기운〕의 칸첸중가와 같이 나 또한 지금은 무명에 덮여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청정진여를 지니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천지의 物物에 모두 佛性을 지닌 眞如자리가 자아의 實相이므로 너 칸첸중가는 네가 아닌 나일 수 있는 것이다.

칸첸중가, 그대 내 본래 자리여! 이 生의 마지막 내가 돌아가 이 몸 누일 곳. 그리하여 나와 또 다른 '나'가 合一되는 그 순간, 난 우주와 하나가 되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을 서리, 봄바람

편집부

벼가 누렇게 익어 가는 들판 한 가운데 한 농부가 서 있었습니다.

한 해의 노고를 결실 맺는 자신의 논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농부는 문득 자신의 것보다 한 뼘은 더 자라 있는 이웃 논의 벼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자기 논으로 뛰어 들어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가 저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벼를 한 뼘씩은 더 키워 놓았지."

"무슨 수로 하루 만에 벼를 키웠단 말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벼 모갱이를 한 개도 남김없이 쑤욱쑥 뽑아 올려놓았지. 이제 우리 벼가 옆집 것보다 더 크다구."

이것은『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와 '나 아닌 것', '내 것'과 '남의 것'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는 당연히 나와 남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찾아서 출가한 수행자인 우리도 때로는 저 어리석은 농부가 되기도 합니다.

운문사의 250명 대중은 24시간 내내〔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개체간 거리 45cm 이하', '친밀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유쾌하든 불쾌하든 벗어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친밀한' 환경 속에서 형제간보다 더한 유대감, 일체감을 느끼고 큰 연민과 자비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나' 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不二의 법칙을 깨닫고 난 뒤에 찾아오는 평등한 자비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의 불만이나 불안을 투사할 대상이나 경쟁자가 있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를 내적으로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실망과 환멸을 주어 수행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승속을 막론한 여러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충돌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克己春風 對人秋霜, 즉 자신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서릿발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든 허물은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그림자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의 결점이나 환경의 부조리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얼마만큼 진실로 발심했는가,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발심하여 정진하는 수행자라면 수많은 대중 가운데 살면서도 바깥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지식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 결점이 눈에 띄더라도 얼른 자기로 돌아와 자신을 반조하고 수행에 힘을 더하므로 공동체 생활에서의 부정적 요소들, 힘겨운 순간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약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견디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장자는 인간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완벽한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산과 구름과 하늘이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서로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고, 또 서로서로 같아지려 하지도 않으면서 이루고 있는, '나' 와 '남' 의 경계가 사라진 경지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조화일 것입니다.

克己秋霜寒雪 하고 對人春風暖日 하라
如是則可學聖賢矣라
나를 이기기는 가을 서리, 찬 눈과 같이 하고 타인을 대하기는 봄바람, 따뜻한 햇살과 같이 하라.
이와 같다면 聖賢을 배운다 할 수 있을 것이니라.

이는 대중 속에서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수행 방편이자, 내 수행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척도입니다.

강원이건 선방이건 속세이건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태도로 목숨을 마친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나의 좋은 선지식이자 거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승화하여 서리가 되듯 우리의 중생심은 자연스레 부처, 성현의 마음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

청아스님 특강

송편 빚기

제 36차 동문회

명사법계품서식

운·문·소·식

- 8월 29일 — 제33기 행자교육원에 강주스님께서 갈마사로 다녀오셨습니다.
- 9월 6일 —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9일 —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가 있었습니다.
- 9월 10일 — 염불수업을 시작으로 맹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요가, 피아노 등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14일 — 일진 학감스님께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날, 자기 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 9월 16일 ~ 18일 — 화엄반스님들의 졸업여행을 위한 신중기도가 비로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1일 —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2일 — '불교와 과학의 대화' 라는 주제로 청아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4일 — 추석맞이 송편빚기 대중운력이 있었습니다.
- 9월 25일 — 추석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9월 28일 — 치문반 스님들의 첫 논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30일 — 제36차 동문회 정기총회가 삼장원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일 ~ 16일 — 학감스님 외에 어른스님 2분과 연구생스님 1분을 모시고 대교과 49명이 14박 15일간 인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8일 ~ 19일 — 미국인 교육자 10명과 행사진행 3명 등 총 13명의 일행이 사찰탐방으로 운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10월 19일 — 九重日祭가 조영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봉암사에서 열린 '수행 종풍 진작을 위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에 사집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0일 — 대구 팔공산 동화사 개산대재 및 점찰산림법회에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2일 —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광우스님의 법화산림회향법회에 화엄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3일 —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학장스님의 '大韓佛敎曹溪宗 明師法階稟敍式' 에 어른스님과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0월 26일 — 가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9일 ~ — 각묵 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열린 '선원청규 편찬을 위한 학술 세미나' 에 화엄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1월 2일 — 가을철 두 번째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4일 ~ — 설우 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1일 — 해인사 강주이신 법진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 11월 15일 — 가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1월 23일 — 가을철 종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정운스님 · 동혜스님 · 여원스님 · 윤덕유 불자님
· 오윤희 불자님 · 윤덕자 불자님 · 구신효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김벽기 불자님 · 송복자 불자님 · 전영미 불자님 · 이병석 불자님
· 권혁창 불자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0-7139 (FAX. 054-372-8834)

본 승가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시험 공고

- 자　　격 : 1. 2007년 가을 수계자까지(행자교육 33기 이전)
  2.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 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반명함판 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복장은 반드시 사미니 의제 착용, 구족계 수지자는 제외)
- 도착일시 : 2008년 1월 2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08년 1월 27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 수시운행
  (운행간격 1시간)

※ 사전 전화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도착 순서대로 접수)

운문승가대학장 명 성

대학원생 모집 공고 – 수의과 (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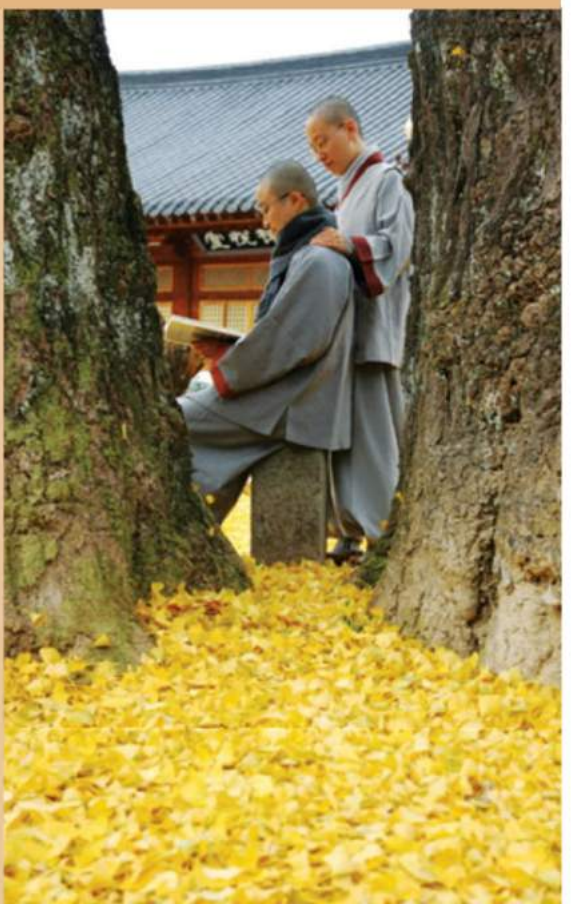
- 모집대상 : 승가대학 졸업자
- 모집인원 : 약간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
- 전형일시 : 2008년 1월 26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 연구기간 : 2년(이력 재독 및 그 외 수의 과목)

※ 입학시험 및 대학원생 모집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승가대학원장 명 성

표지사진 / 죽림헌 가는 길 단풍나무.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02호·2007년 11월 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경석 / 편집위원·원재, 정안, 동환, 자연, 등광, 유덕, 진벽, 현진, 치도, 무견 / 사진·우연
컴퓨터·유덕 / 편집디자인·㈜미디어 (02)2285-3366